

무역한류로 가는 훈걸음 한·미 FTA

한·미 FTA,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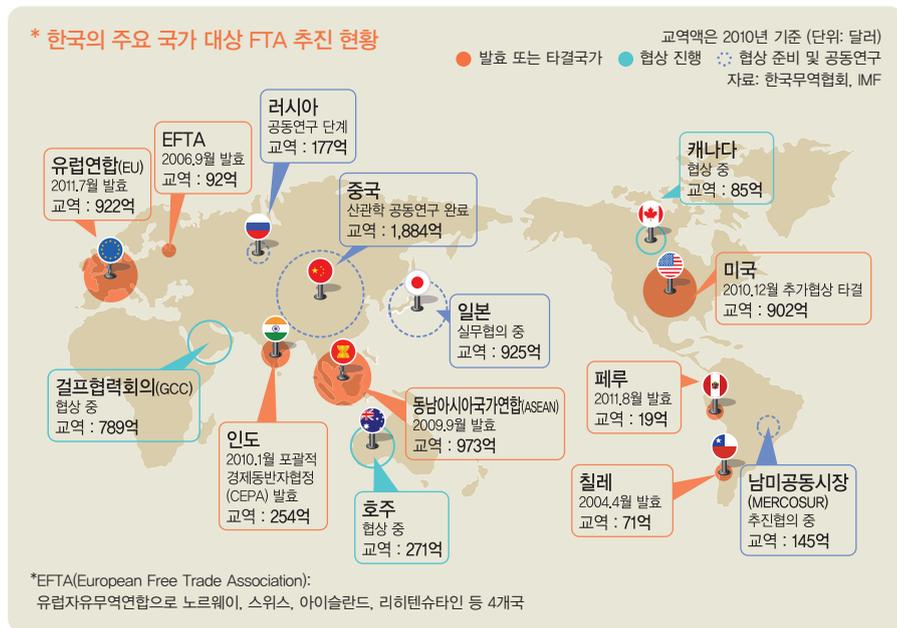


한·미 FTA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이유!

1 우리 경제 재도약의 디딤돌입니다.

전 세계의 61%가 우리의 경제영토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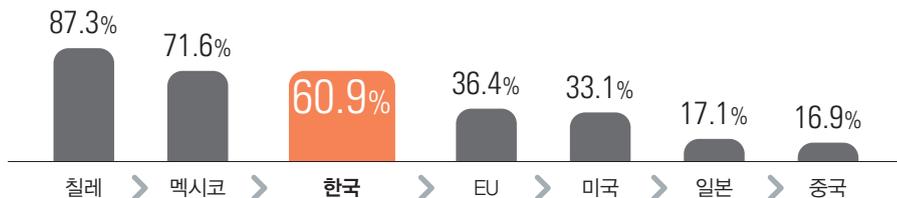
한·EU FTA 발효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유럽·아시아·북미 3대륙을 잇는 'FTA 허브 국가'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무역의존도('10년 GDP 대비 87.9%)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우리의 살 길은 수출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GDP) 대비 60.9%로 확장되어 경제영토 세계 3위의 국가로 도약합니다.

*** 주요국 경제영토 추정치(자국 GDP 포함, 발효·체결 기준, 2009년 기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EU)보다 앞서 1조 9천억불의 세계 최대 미국시장을 선점합니다.

* 세계 수입시장 순위(단위: 10억 달러, 2010년 기준)



(자료: IMF)

관세인하 효과로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들보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Made in Korea'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져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증대됩니다.

또한 우리 제도와 시스템이 국제 수준으로 선진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됩니다.

칠레/멕시코 시장에서의 FTA 경험과 교훈

• 한·칠레 FTA('04)로 우리의 칠레 시장점유율은 '04년 3.1%에서 '07년 7.2%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06년 중국에 이어 '07년 일본이 칠레와 FTA를 발효시키면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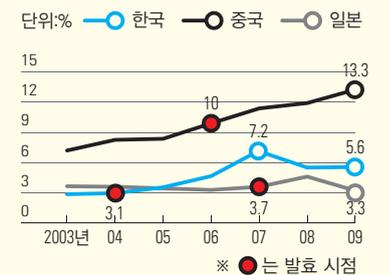
➔ 경쟁국보다 FTA를 빨리 타결할수록 FTA 선점 효과가 커집니다(FTA 선점효과).

• 일·멕시코 FTA('05)이후 일본산 자동차의 멕시코 시장점유율은 30%까지 증가한데 반해 FTA 미체결로 인해 관세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한국산 자동차는 멕시코 시장 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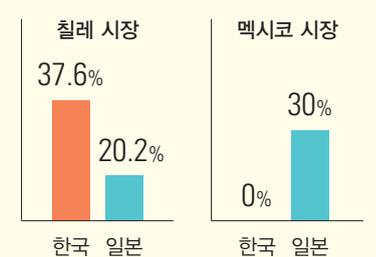
➔ 무역상대국의 관세율이 높을수록 FTA 체결이 중요합니다(FTA 체결효과).

* 자동차 관세: 칠레 6%, 멕시코 30%

* 한중일 칠레 시장 점유율 비교



* 자동차 시장 점유율(2009년)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납니다.

한·미 FTA 발효 후 우리 경제는 실질 GDP 5.66% 증가, 일자리는 3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FTA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큽니다.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추가협상 반영, 발효 뒤 10년간 증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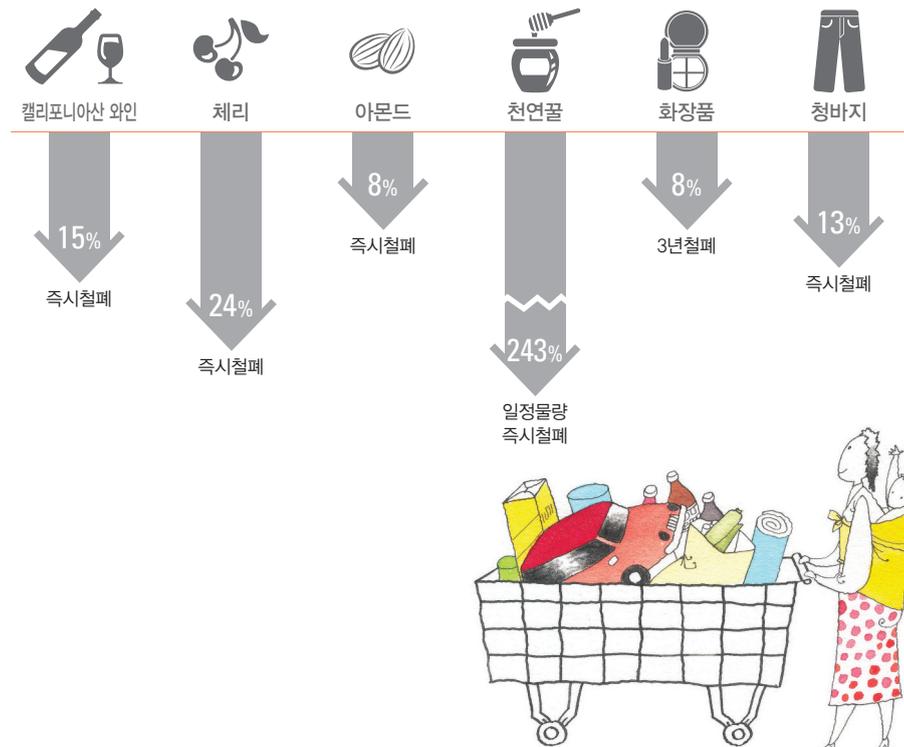
자료: '11.8월, 10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분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줍니다.

한·미 FTA로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장바구니 물가로 고민하는 주부들의 근심을 덜어줍니다.

* FTA 이후 낮아지는 미국산 제품(관세인하)



2 기업과 국민이 한·미 FTA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수출증대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한·미 FTA 비준 지지율



중소기업, 하루빨리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 권동철 _ 트렉스타 대표**

미국은 운동용 신발에 고관세(운동용 48%, 기타 37.5%)를 부과하고 있다. 한·미 FTA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아웃도어 신발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효과를 확신하고 있다. 한·미 FTA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 미주 지역 전체로 시장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다.

*** 전종인 _ 우수AMS 대표**

한·EU와 발효가 임박한 한·미 FTA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 회사의 성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직수출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한·미 FTA 호기를 회사의 비약적 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일반국민, 일자리가 늘고 경제 기쁨이 튼튼해지면 좋겠습니다.

*** 김상헌 _ 직장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주변에 실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우리 경제의 화려한 실적들이 미세 혈관 속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력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한·미 FTA는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발효가 이뤄져야 한다.

*** 황도순 _ 농부, 경기도 이천시**

화훼 농사를 시작한 지 20년이 흘렀다. 연간 1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안정된 기반을 다졌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가 부족했다. 한·미 FTA를 계기로 새로운 품종 개발, 농업의 혁신을 구상하고 싶다.

3 이웃 경쟁국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일본, 중국 등 이웃 경쟁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EU에 이어 미국과도 FTA 협상을 마무리 지어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한 경쟁조건에 놓일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 “이대로 가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에 뒤쳐질 것이므로, 일본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한국의 정치결단을 배워 FTA 협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 산케이 2010.12.7 -

* “한·미 FTA로 한미관계가 한층 공고해지는 반면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중국 환구시보 2010.12.5 -

* “미국 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중인 일본 기업이 향후 경쟁조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우려가 있다.”

- 닛케이 2010.12.4 -

NEWS

이제 국익을 위해
한·미 FTA 비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추가협상 이후에도 한·미 FTA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추가협상은 2007년 4월 타결 이후 3년 이상 끌어온 기존협상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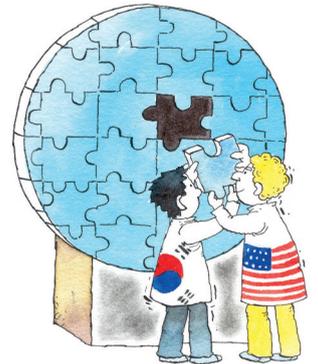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부 요구를 수용하고, 우리도 돼지고기 관세존속기한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이행 유예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동차 관세철폐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승용차 관세가 발효 4년후 양국 모두 사라집니다.

* 한국(관세 8%)은 발효시 4%로 인하, 4년후 철폐 / 미국(관세 2.5%)은 4년후 철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제도의 이행을 3년 유예하여 복제약품이 많은 우리 제약업계의 매출손실 방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주재원의 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비자 연장을 위한 출국 및 서류 구비 등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추가협상 내용을 환영하고 조속한 비준을 요구합니다.

* “이번 타결로 최대 시장인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안정적인 판매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현대기아 자동차그룹, '10.12.5 -

*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양국 자동차산업 분야의 공동발전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10.12.5 -

*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면밀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

- 한국제약협회, '10.12.5 -

FTA 국내보완대책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농어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FTA 종합대책 성격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2007년 수립하여 시행중입니다.

또한 그간의 농수산업 등 환경 변화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대책을 수정·보완한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2011년 8월 19일 발표하였습니다.

• **기존대책의 재정지원 21.1조원에서 22.1조원으로 1조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민 수요가 많은 축사시설 및 과수·원예시설 등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2.2조원 → 4조원)하였습니다.

•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높여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발동기준) 수입증가로 가격이 평균 시장가격 대비 80% 이하 하락 ⇒ 85% 이하 하락
(보전비율) 당해연도 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85% ⇒ 90% 보전
(시행기간) 7년 ⇒ 10년

• **농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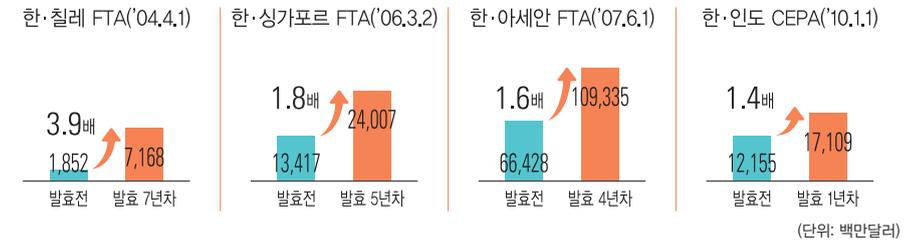
(제도개선) 농어가 신용보증제도 개선(한도10억 → 30억),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 및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품목 및 범위 확대 등
(세제지원) 면세유 공급 기한 연장('12.6.30 → '15.12.31) 및 대상기종 추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과세 특례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등



'발효된 FTA' 우리 경제를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발효된 FTA 체결국들과의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피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발효 이후 FTA 체결국에 대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칠레 FTA의 경우, 자동차 수출은 발효 이전보다 약 5배(판매대수 기준) 증가하였고, 2007년 이후 4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한국 ('03)18.8% → ('07)29.3% → ('08)29.7% → ('09)37.6% → ('10)39.0%
일본 ('03)23.5% → ('07)25.2% → ('08)25.6% → ('09)20.2% → ('10)34.4%

FTA 체결이전 우려되었던 피해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농민단체 등이 우려했던 포도의 경우,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산 포도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포도가격, 시설포도 생산량 및 재배면적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시설포도

	2003(A)	2007	2010(B)	B/A
생산량(톤)	24,910	32,089	44,534	1.8배
재배면적(ha)	1,641	1,840	2,242	1.4배
가격(원/kg, 3~6월 평균)	6,486	7,297	9,870	1.5배

FTA 체결은 중소기업에게도 다양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신규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출액의 83%, 기업수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발효('11.7월)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출확대 사례 (출처: KOTRA, '11.8.2)

- 한국산으로 수입선 전환
 - TV 송신기(핀란드 Semac Oy社, 중국산 ○ 한국산)
 - LED 조명(독일 J.Kuff社, 중국산/대만산 ○ 한국산)
 - 산업용 원단(스페인 Jose Ferrandez社, 중국산 ○ 한국산)
- 한국산 수입물량 확대
 - 자동차 부품(덴마크 SBS A/S社, 독일 A社)
 - CCTV/보안 카메라(영국 Videcon社)
- 한국산 소비자재 구매 확대
 - 패션소품, 의류, 완구 등(스페인 최대 백화점 그룹 El Corte Ingles)

한·미 FTA,
이것이 궁금합니다!



Q 한·미 FTA 비준이 안될 경우, 국가적 비용은 무엇인가요?

A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의 선점기회를 놓치게 되어 우리 경제의 발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한·미 FTA 발효가 늦어지면 일본,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또한 한·미 FTA 비준 지연 또는 실패는 G20를 계기로 격상된 우리의 국제 사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Q 한·미 FTA '소위' 독소조항에 대해 재재협상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A '독소조항'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들입니다.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되는 내용들은 투자보호 및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Q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대책이 불충분한 것은 아닌가요?

A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2007년 11월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그간의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인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발전된 대책을 마련, 지난 8월 19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기존 대책보다 1조원이 많은 22조 1,000억원 규모로 확대·수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어업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FTA를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Q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의무로 약값 폭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A 국내 의약품 가격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시점을 3년 연기함으로써 우리 제약업계가 이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특허권보호는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국내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한·미 FTA는 반복지 反서민 정책인가요?

A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등 FTA로 인한 파생효과는 국민 모두가 누릴 혜택입니다.

한·미 FTA는 10년간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되고, 소비자 후생이 장기적으로 321.9억 달러가 증가되며, 특히 서민들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 발효 후에도 보건 의료, 상하수도 등 공공 서비스관련 법령과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등 한·미 FTA는 진정한 親복지 親서민 정책입니다.

Q 이웃 경쟁국들이 한·미 FTA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A 경쟁국들은 미국 및 EU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미국과의 FTA 타결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세계 최대 시장을 경쟁국보다 선점하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쟁국들 특히 일본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경쟁조건에 놓일 것을 우려하며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